**마2113 Note**

**◆인용문: 사5607**

사5603. 여호와께 자신을 이어 붙인 낯선이(네카르:이국의,외국인,이교국,외국의, 낯선,낯선 사람)의 아들로 이를 말하게 하지 말라, 말하되, "여호와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분리시키셨도다" 또 거세된 자로 이를 말하게 하지 말라 곧, " 보라, 나는 메마른 나무라"

사5604. 이는 내 안식일들을 지키며,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택하며, 내 혈약을 붙잡는 거세된 자들에게 이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심이니,

사5605. 바로 그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와 내 담들 안에서, 아들들의 그것과 딸들의 그것보다 더 나은 한 장소와 한 이름을 줄 것이니라,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영속(永續)되는 이름을 줄 것이니라.

사5606. 또한 그분을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분의 종들이 되기 위해, 자신들을 여호와께 이어 붙이는 낯선이(네카르:이국의,외국인,이교국,외국의,낯선, 낯선 사람)의 아들들과,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내 혈약을 붙잡는 낱낱의 자,

사5607. 바로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, 내 기도의 집에서 그들로 즐거워하게 만들 것이니라, 그들의 번제물들과 그들의 희생제물들이 내 제단 위에서 받아들여지느니라, 이는 내 집은 모든 민족(암:백성,이스라엘의 지파,무리,수행원들, 떼,사람들,민족,백성)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움이라.

렘0711. 너희의 눈들에는,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집이 도적들의 소굴이 되었느냐? 보라, 바로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, 여호와가 말하느니라.